보도자료	사법정책연구원 Judicial Policy Research Institute	
2025. 10. 17.(금)	담당 부서	연구기획실
	담당자	공보판사 윤동현 (☏ 031-920-3548)

♣ 즉시 보도 가능합니다.

사법정책연구원, 10월 24일(금) 「출생등록에서 유언등록까지」 공동학술대회 개최 예정

▣ 사법정책연구원은 대한법무사협회와 함께 2025. 10. 24.(금) 14:00부터 17:20까지 사법연수원 후생동 소강당(B1)에서 「출생등록에서 유언등록까지」라는 대주제로 아래 첨부 프로그램과 같이 공동학술대회를 개최할 예정임

▣ **의의**

- 최근 아동의 출생등록될 권리를 보다 충실히 보장하고, 생전에 작성된 유언의 보관과 실현을 뒷받침하는 제도가 마련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활발히 제기되고 있으며, 이에 대한 논의의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음
- 이에 대한민국 국민으로 태어난 아동의 출생등록될 권리를 보다 실효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방안과 유언증서 등 등록보관제도의 도입 방안을 다각적으로 논의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함

<제1세션>

▣ **주제발표 예상내용: 「유언증서 등 등록보관제도의 도입 방안」 - 정현준 사법정책연구원 연구담당관**

- 유언 등록보관제도의 도입 필요성

- 현행법은 작성된 유언의 보관 및 발견을 지원하는 공적 제도를 두고 있지 않아, 유언이 신속하게 발견되지 못하거나 유언의 위·변조 등을 다투는 분쟁이 반복적으로 발생함

- 외국은 오래 전부터 유언의 보관위치 정보를 등록하는 장부를 두거나 국가기관이 직접 보관하는 체계를 운용해왔음. 특히 일본은 2019년부터 국가가 유언을 보관하는 제도를 시행하였고, 이에 영향을 받아 국내에서도 유언 등록보관제도의 필요성에 대한 논의가 확산됨

● 유언제도의 현황 및 시사점 검토

- 관련 분쟁, 외국 사례, 국내의 논의를 종합적으로 검토

- 이를 토대로 우리나라의 상속 법제와 실무에 적합한 유언 등록보관제도의 구체적 구조와 쟁점을 제시

● 제도 도입을 위한 핵심 구조 제안

- 자필증서유언·녹음유언은 보관대상으로, 공정증서유언은 등록대상으로 함

- 담당기관은 법원으로 하되 시·군법원까지 설치 가능

- 보관 신청 및 철회는 유언자 본인이 직접 방문

- 복수의 유언 보관 신청 가능, 관할 제한 없음

- 보관된 유언에 대해서도 검인절차는 면제하지 않음

- 가족관계등록시스템과 연계하여 유언자 사망 시 유언 보관사실을 자동 통지

<제2세션>

▣ 주제발표 예상내용:「대한민국 국민으로 태어난 아동의 출생등록될 권리 보장 방안」- 안원주 법원공무원교육원 교수

● 아동의 출생등록될 권리의 실효적 보장 방안 논의의 필요성

- 2024. 7. 19.부터 도입된 출생통보제는 의료기관에서 출생한 아동의 공적 인

지를 확대한다는 측면에서 진일보한 변화이나, 이로써 아동의 출생등록될 권리가 모두 보장되었다거나, 국가가 아동의 출생등록될 권리에 관한 의무를 모두 이행하였다고 볼 수는 없음

- 일반적인 출생신고 절차에서 개선해야 할 사항은 없는지, 출생등록 당시 부모의 기록과 관련하여 개선해야 할 사항은 없는지 등에 대한 논의가 필요함

● 출생신고인, 출생신고 기재사항, 신고방법 관련 문제점 분석 및 개선방안 제시

- 혼인 중 출생자와 혼인 외 출생자의 구별 관련 문제점 분석과 가족관계등록법 제46조를 중심으로 하는 개선방안
- 후순위 출생신고의무자 관련 문제점 분석과 가족관계등록법 제46조 제3항에 대한 개선방안
- 출생신고 기재사항 관련 문제점 분석과 가족관계등록법 제44조 제2항 및 이와 관련된 출생신고서 서식에 대한 개선방안
- 온라인 출생신고제도 도입 및 확대 현황과 생부의 친생자 출생신고(인지의 효력 있는 출생신고)까지 온라인 출생신고를 확대하는 개선방안

● 부모 기록 관련 친생추정 및 생부(生父)에 대한 문제점 분석 및 개선방안 제시

- 친생추정 범위, 출생자의 지위 및 부 기록 근거, 친생추정이 경합하는 경우의 문제점과 해외 입법례를 참고하여, 원칙적으로 혼인 중에 출생한 자를 남편의 친생자로 추정하는 개선방안
- 절차법인 가족관계등록법상 생부의 친생자 출생신고 관련 확인제도의 한계, 친생추정을 배제할 수 있는 방법 중 친생부인의 소의 문제점과 해외 입법례를 참고하여, 생부와 자녀에게도 친생부인권을 부여하는 개선방안

▣ 온·오프라인 동시 진행

● 본 행사는 현장 참가를 중심으로 진행하되, 온라인으로도 참여할 수 있음. 행사 당일 유튜브(www.youtube.com)「사법정책연구원」채널에서 생중계할 예정이며, 행사 종료 후에도 동영상을 게시할 예정임

● 발표문, 토론문 등 관련 학술자료는 현장에서 배포할 예정이며, '사법정책연구원 홈페이지(jpri.scourt.go.kr) > 발간자료 > 학술 행사 자료' 항목에 게시할 예정임

▣ **전망**

● 이번 공동학술대회를 통하여 각계 전문가와 실무가의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어 아동의 출생등록될 권리 보장 방안과 유언 등록보관제도의 도입 방안에 관한 유익한 시사점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사법정책연구원은 앞으로도 다양한 사법정책 쟁점에 관하여 전문적이고 심층적인 연구와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임. 끝.

프로그램

전체사회: **이규헌** | 사법정책연구원 연구담당관

14:00-14:10	**개회식**
개 회 사	**이승련**	사법정책연구원장
환 영 사	**이강천**	대한법무사협회장
14:10-14:20	장내정리 및 기념촬영
14:20-15:40	**[제1세션] 유언증서 등 등록보관제도의 도입 방안**
사 회	**곽재창**	사법정책연구원 연구심의관
발 표	**정현준**	사법정책연구원 연구담당관
토 론	**오병철**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선희	서울가정법원 판사
	박중욱	대한공증인협회 법제이사(변호사)
15:40-16:00	휴식
16:00-17:20	**[제2세션] 대한민국 국민으로 태어난 아동의 출생등록될 권리 보장 방안**
사 회	**박영욱**	사법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고등법원 판사)
발 표	**안원주**	법원공무원교육원 교수
토 론	**강나래**	수원가정법원 판사
	김희진	성공회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연구위원(변호사)
	이혁준	전국여성법무사회 여성법위원장(법무사)